

민주, 김남국의원 탈당선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현재, 추후 복당 시 불이익 등 제한규정만 있어 탈당 권유 있었는지 묻자 “확인 할 수 없다” 징계회피목적 탈당 지적에 “해석 여지 있을 것” 탈당 후 조사지속 여부엔 “지도부가 결정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자진탈당 선언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탈당에 대한 외부의 ‘꼬리자르기’ 지적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꼼수탈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묻자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현재법상 징계절차에 있거나, 탈당 된 사람이라도 추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 지도부 차원의 탈당 권유 등에 의해 김남국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반응

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선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꼼수 탈당을 하려한다며 지도부가 수락해선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를 살펴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묻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이어 “제21조에 (관련 내용) 있다. 징계절차는 징계정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 여러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이 조사내용 등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어떤 경우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 제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원은 징계사유확인결정문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혔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탈당한 자(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 질문하자 권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 조금 전에 탈당 선언을 해서 이후 여러가지 당이 취해야 할 방침이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이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백리피링에서도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 활동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다소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의원 사태와 관련해 가

상자산 보유분 전부 매각, 진상조사단 구성,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 중 김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분을 실제로 전부 매각했는지 묻자 “그 부분은 확인 못 하고 있다. 본인 자산이니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이슬기자

정재성 광주 북구의원, 장애 영·유아 지원방안 제시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에 대한 적극 행정 당부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 양산, 신용동)이 지난 11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성질문에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장애 영·유아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그 대

안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 유도, 장애인식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현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7곳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만 있을 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장애 영·유아 및 가족 지원은 관련 전문영역에서 분절된 정책과 서비스로 인

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보호자 안내 매뉴얼 제작,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관한 온·오프라인 홍보, 관련 의료기관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비장애아동이 편견 없이 장애아를 마주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애 영·유아기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 교육에도 장애인식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정재성 의원은 “북구가 진정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 영·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 정책 수립, 장애아동 보호자 안내 매뉴얼 제작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북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민주 “정부·여당, 권력 놀음 그만해야”

“경제는 민생·안보...실리 외교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끝 모르고 악화하는 경제와 민생고에 국민은 신음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다”라며 “권력 놀음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능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야당의 민생입법을 거부권 행사로 어깃장 놓고 있다”며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을 옥죄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속속 발표되는 지난 1분기 경제지표들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수출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정적자는 올해 전망치의 92%에 육박하는 54조 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물가는 잡힐 기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급박한 경제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권 개입에 몰두

하고, 여당 지도부는 권력에 취해 망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리 외교에 나서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와 안보 디커플링을 선언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 추세면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며 “안일한 낙관론에 빠져 무대책으로 방관하지 말고 부자 감세를 바로잡아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는 민생이고, 안보”라며 “민생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